



攝
信
慈
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 월간·비매품

東友會報

1990年(壬午4323年) 2月28日 第144號 [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虞德一
인쇄인 張明錫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 (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0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89 학위수여식

새동문 3,632명 맞아

學士 2,235·碩士 104·博士 35명

모교 1989학년도 학위수여식
이 서울 및 경주캠퍼스에서 지난 23일과 26일 각각 열려 새동문 3,374명을 배출했다.

中國柱총장서리, 吳綠園이사장
本會 鄭在哲회장과 동문,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235명(경주 1,258), 석사 104명, 박사 35명 등 총 3,374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박사학위수여자 프로필 2면>

우천으로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장서리는 식사를 통해『학창시절 배우고 연구한 지식을 활용, 사회에봉사하는 역할이 될 것』을 당부하고『자아 완성의 자의와 利他的 가르침을 펼쳐 白重自愛하고 東國을 재건하는 학력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될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주캠퍼스에서는 26일 학위수여식에 앞서 삼정탕인 코끼리상 대식당을 가졌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경주캠퍼스 이상환(법학·야)군이 평점 4.5만점에 4.33을 얻어 전체 수석을 차지했고, 같은 평점의 서울캠퍼스 김희태(이과대학 물리학)군은 취득학점에 뒤쳐 차석에 머물렀다.

本會 運營委員會 2차모임



本會 자립운영의 기반을 공고하기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會長團·常務理事·理事 등 30여명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총동창회 運營委員會(의장=鄭在哲)의 2차모임이 지난 26일 柳根昌(49 문학·대한주역학회 회장) 위원 자택에서 운영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미 지난해 12월 鄭在哲의 장자택에서의 1차모임을 겸한 1차모임을 거친 데 이어 이번 2차모임에서는 鄭在哲의장의 동창회관 건립에 따른 동문참여와 공감대 확산, 90년대 총동창회의 자립운영에 대한 협조단부에 따라 각위원회 간에 회부 전에 대한 깊이있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운영위원회를 3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지부 신년행사 盛了

행정대학원동
행정대학원 장창희(회장=尹鑑均)(C9현원·한

무개발 대표이사는)는 동문 1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6일 신라호텔 다이너리스터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경영대학원동
경영대학원장
최희정(李起彬·79학번)

국회의원(동문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 사무실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각 회원간의 신년기원과 會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제15대 任員陣 확정

常務이사 66·理事 527명

제15대 東國大學校總同窓會理事진이 常務理事 66명, 理事 5백 27명, 總 5백 93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15대 일원진은 本會 51차 정기이사회(89. 3. 16)에서 鄭在哲회장에게 임원선출을 일임

한 결의에 따라 本會회칙 제8조와 9조에 의거, 選任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韓連建(54 경제·인천투자금융(株) 전무이사)·동문 5명이 「常務理事」, 趙誠雲(56·경제) 등 99명이 「理事」에 각각 새로이 선임되었다.

이번 일원선임은 기존 14대 일원진과 각급단위조직의 임원 및 각계 동문들의 신임추천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선별하여 회장단의 운영위에서 검토한 후 회장단의 의에 상정되어 최종임의를 마치고 의의를 얻어 결정되었다.

本會의 광운도, 잠식석, 회비 납부실적등의 실자를 거쳐 각期別, 學科別 안배를 통해 선임된 15대 일원진은 오는 4월에 있을 제52차 정기이사회에서 추대된 후 정식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母校의 위상회복과 함께 모교발전 1백억기금조성, 동국·한전·선태화·「동국발전후원회」를 통한 불교·종합병원의 건립, 그리고 8만 동문의 속원인 동창회관 건립 등을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불때 이의 실현을 위한 15대 일원진에 거는 기대는 남다른 것이라 하겠다.

<일원진명단 4·5·6面>

運營委員 3명 보강



國民自黨에 합류했으며 본회 지도위원회로 東國발전에 이바지시켰다.

▲李肯珪 위원(사진③)=언론인 출신답게 손발력과 논리가 뛰어나며, 13대에 정계에 투신한 선현의원으로 신아일보는 설위원, 경향신문 정치부장, 한국기자협회장, 국제기자연방부회장을 다져온 언론계 경력이 인정돼 民正黨부대변인으로 활약하기도. 본회이사로 自稱他稱

▲張亨植 위원(사진②)=평소 본회발전에 남다른 관심으로 열심을 보인 張宏문은 한남대 학생지도과장과 東緣會 총무이사 등을 거쳤고 현재는 金剛特殊印刷(株) 회장과 한국 타포린(株) 상임회장으로 재직.

▲崔炯植 위원(사진④)=8대 국회부터 정계에 진출 외교수인으로 중랑갑 있는 4선의원. 정치구제→해금등 파란을 겪고 재기, 民主黨부총재·원내총무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치고 최

卒業生들에게 주는 글



鄭在哲 회장

族문화의 뿌리이며 주인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東國精神은 우리 8만同門을 하나로 뭉치게하는 영원한 母胎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동국대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동문이 되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둘째,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 발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 8만 동문은 사회와 역사가 우리 東國人에게는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희생과 봉사로써 국가사회발전에 주체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째, 84개星系를 교육 구국의 기초아래 민족사와 함께 성장해온 우리 東國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제 모교의 百周年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校庭을 떠나는 여러분은 언제나 母校를 사랑하고 모교의持續적인 발전에 관심을 갖는 東國의主人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慶愛하는 주교생 여러분! 여러분이 追出하는 社會各界에 우리 동문先輩들이 東國人の矜持로 굽게 뭉쳐 활潑한活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先輩들은 여러분을 단감고 쓰거나 마음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사회 각분야로 진출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자랑스런 東大門으로 成長해 빛나는 우리의傳統을 繼承发展시켜 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글로 부지님의 加護이 래 여러분의 앞날에 融光과 繁榮이 가득 하기를 祈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구와 競爭해도 뛰어지지 않겠다는 東國의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成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뒷부처 社會로 진출하는 후배 여러분께 소장回門을 대표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東國精神은 우리 民

충장서리에 申國柱 동문 財團이사장 吳綠園 동문

재단이사회는 16일 타워호텔에서 제101회 재단 이사회를 열고 모교 총장서리에 申國柱(50·사회)

사진左)동문, 이사장에 吳綠園동문(73학번·사진右)을 선임했다.

총장서리는 47년 혜화전문학교 물과대학과 50년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와세다대학에서 정치학 석·64년 日本법정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한

후66년부터 본교 정치학과 교수와 행정대학원장, 법정대학원장, 이부대 학장 등을 역임한 바있다.

吳이사장은 46년 佛傳大敎科 졸업, 73년 모교 행정대학원 수료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과 충무원장, 불교신문사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모교 발전의 기여가 큰 동문이다.

90신춘문예...다섯동문 당선

東國文學 중 흥의 초석...창작의 육 고취제기로

한국문단에서 동문 문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동문 5명이 90년 신춘문예에서 대거 당선, 東國文學의 미래를 밝혔다.

▲韓萬洙(84 국문) (우리들과 너희들, 그리고 그사이—긴 해학론) 東亞日報 평론.

▲明植明(84 국문) 「未堂詩에 感念統御의 方法」 世界日報 평론.

▲趙重義(85 중문·慶) 「새 사당」 每日新聞 소설

▲宋喜復(86 국문) 「詩的화자의 냇두리와 디원 언의 공간」 朝鮮日報 평론.

▲李允學(90 국문·慶) 「첨소부」 外 韓國日報 평론.

이미 지난해 많은 동문文人들이 文壇 각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東國文學은 신춘문예 5명 당선이라는 이번 폐거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신세이다.

또한 최근 2~3년간 각종 문학지나 신춘문예를 통해 많은 재학생·동문들이 등단하고



▲韓萬洙동문



▲蔡明植동문



▲趙重義동문



▲宋喜復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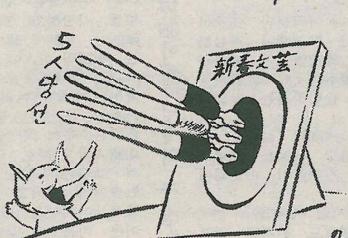


▲李允學동문

있는 추세이고 보면 東國文學復活의 실현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동국부학인회를 위시한 동문과 모교측지원, 재학생들의 꾸준한 창작열이 결집될 수만 있으면 말이다.

東友漫評 鄭雲耕



“파여 東國文學”

1989학년도

博士학위 취득자 프로필

▲全好蓮(哲學박사)=新羅 義湘의 華嚴敎學研究

▲崔鷗守(哲학박사)=初期佛教의 緣起思想研究

▲張世懲(문화박사)=고대 복수인 명묘기의 음성·음운론적 고찰— 삼국시기·삼국유사·인명을 중심으로

▲金善鶴(문화박사)=韓國現代詩의 詩의 공간에 관한 연구

▲李泰基(문화박사)=眞理由研究

▲柳炳環(문화박사)=古典小說 <九雲夢>研究—佛教思想의 圖象象徵에 대하여

▲康興立(문화박사)=T. S 엘리엇의 소외의식 연구

▲金相鉉(문화박사)=新羅華嚴思想史研究

▲林英正(분학박사)=朝鮮初期 外居奴婢研究

▲金弼洙(哲학박사)=一旅軒易學의 道德論의根據에 관한 研究—易學圖說을 중심으로

▲朴鍾參(교육학박사)=비판적 思考와 창의성의 합양을 위한 교육과정계획의 理論建構

▲崔建東(법학박사)=國家의 산정에 관한 연구 大韓民國의 國旗을 중심으로

▲車相浩(정치학박사)=泰國政治에 있어서의 피분(phibun)政權(1938~1944)에 관한 연구

▲李潤根(법학박사)=韓國 私察捕 半殖民地에 관한 연구

▲金榮錦(경계학박사)=韓國의 適正所得稅率에 관한 연구

▲廉在善(경계학박사)=住宅 (製品)

MIX決定要因에 關한 研究—a파트
略地造成을 중심으로

▲禹彰烈(경영학박사)=韓國企業의 官僚化와 碗外型 紙網深入의 關聯性

▲朴洙(경영학박사)=觀光마이케팅과 消費者行動에 關한 研究—利用狀況과 호텔 選擇行動을 中心으로

▲朴炅烈(경영학박사)=국제 이전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實證적 연구—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李成吉(경영학박사)=회계장부의 이 용에 있어 기능적 고착현상과 중요성 간의 관계연구—우리나라 증권분석기의 회계방법 변경정보의 이용을 중심으로

▲鄭世雄(경영학박사)=감사보고서의 거주나이에 따른 효과에 관한 實證적 연구—임원감사의 인식 및 행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任昌周(문화박사)=南漢江의 河岸殷丘에 關한 研究

▲韓鴻烈(문화박사)=한국 전통수공업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關한 研究—器工業을 중심으로

▲韓漢洙(문화박사)=On the Two Stage Queue Feedback

▲千美慶(문화박사)=ON FUZZY NEA

RNESS SPACES

▲李甲得(이학박사)=느티나비 씨앗송의 광활성에 관한 연구

▲李延煥(이학박사)=GaAs에 대한 Si이온 주입의 커먼터제산 및 그물리적 특성

▲林栽榮(이학박사)=MBeO에 의한 Si기판 위의 GaAs 성장과 특성—RHEED를 이용한 표면분석을 중심으로

▲李鍾淏(농학박사)=보리(Hordeum distichum L.)의 荷孢粉 效率 増殖方法에 관한 연구

▲朴環碩(농학박사)=한국 산림조합의 성격구명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여사적 전개과정과 사업분석을 중심으로

▲高城鎬(공학박사)=마이크로스토리밍 슬로트의 圓形 位相분리란테나 설계

▲朴敬浩(공학박사)=二階筋筋코리트의剪斷构造에 관한 연구

▲金錫中(공학박사)=H形鋼보의 橫挫耐力에 관한 연구

▲金慶信(이학박사)=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의 가치관 달성을 중심으로

▲安明淑(이학박사)=架盤의 衍義에 관한 연구

지부·지회 신년모임 盛了 동문사회 결속다진 한마당

仁川지부= 인천지부(회장= 金奉教·52정치·운수업)는 지난 16일 월미도 소재 흑산도식당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동문간의 유대강화와 함께 지역사회발전을 물론 동창회의 친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濟州지부= 제주지부는 월례 모임을 이어진(제주MBC총무국장)동문 自宅에

서 갖고 신년하례와 함께 90년 제주지부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동문 부인들의 모임인 東蓮會와 함께 한 이날 모임에서는 지부 활동성과 방안과 제주 지역 총동창회의 7월 개최에 대한 진지한 토의로 東國가족의 우애를 다졌다.

城北지회= 산부지회(회장= 金光錦·69 경협·보회이사)는 지난 13일 동소동에 새 사무실을 개설하고 입주식 및 현관식을 가졌다.

서울캠퍼스 副總長에 吳國根동문

大院李載昌·行院鄭允武·經院趙熙永



▲吳國根부총장 ▲李載昌교수 ▲鄭允武교수 ▲趙熙永교수

모교는 2월 17일 字서 서울 캠퍼스부총장에 吳國根(영문학 교수) 現 기획조정실장을, 1월 29일자로 대학원장에 李載昌(불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대규모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대학원장에 鄭允武(행정학과)·경영대학원장에 鄭允武(경영학과)·정보산업대학원장에 金泰弘(무역학과)·▲교육대학원장에 鄭址鏞(수학교육학과)·▲의료원장에 朱錫球(철학) 교수등이 임명됐다.

각 대학원장은 ▲불교대학원장에 吳亨根(불교)·▲문과대학원장에 金英培(국문)·▲이과대학원장에 崔德熙(수학)·▲법과대학원장에 李淳容(법학) 교수등이 임명됐다.

서울캠퍼스 서실장급인사에서는 ▲기획조정실장=吳國根(영문)·▲교务처장=閔泰鎮(화학)·▲학생처장=鄭用吉(정치·외교)·▲총장비서실장=金錫中(화학)·▲중앙도서관장=徐潤吉(불교)·▲바른교언구원점장=洪潤植(사회·교육)·▲불교교류학연구원장=趙樹培(불교) 교수등이 각각 임명됐다.

신년하례를 겸한 이날 입주식은 同會의 결성 6주년을 맞아 활동이 미진했던 기존의 보통동사무실을 폐쇄하고 보다 활성화된 지회로서의 도약을 위해 金榮熙(63정치)동문이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함에 따른 것이다.

同會 사무실은 성북구 동소동 1号 22번지 삼관빌딩 5층 505호이며 전화번호는 744-2455-6이다.

惠東會= 惠東會(회장= 李殷載)은 전문부 49년·학부 52년 출입성의 친목모임인 혜동회는 2월 23일 밤 김님 구 강호회관에서 새해 첫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 40여명 분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친근함을 둘고 담소를 나누며 회원간의 우의를 돋우기 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기록했다.

61경제학과 동기회(회장= 金濟局·본회이사·고려병원이사장)는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 내 상의회관에서 열린 회장을 갖고 최근辭意를 표명한 陳宗龜(총무부)의 후임에 차원우동문을 선임했다.

東史會= 東史會(회장= 金鶴秀·GSA회장)은 지난 16일 모교교수당에서 신년하례를 겸한 史學科 총동창회를 개최했다.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신년소원과 함께 최근 밝겨진 학회지 「青史」의 장간을 자축했다.

在華동문회는 지난해 말 정기총회를 갖고 尹慶(80哲學) 동문을 새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했다.

대만에서 활동중인 모든 동문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시종 회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어 南秉祐(71 경영) 동문을 명예회장에 추대하고 金漢榮(81 불교) 동문을 신임총무에 선임했다.

이날 총회는 학업을 마치고 渡日 유학하는 李學魯(76哲學) 동문의 솔별식까지 겸해 해외지부 특유의 동문애를 북돋웠다.

한편 在華동문회는 많은 동문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으나 芮英淑(87중문·慶) 동문 등 신규회원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어 同會의 활성화가 한층 기대되고 있다.

본회 제14대 任員명단 〈2〉

▲尹大欽(〃)=도서출판 백만
사 대표
▲尹在植(〃)=한국 염색공업
협회 전무이사
▲孔珍植(61 경제)=태창유리
대표
▲金基俊(〃)=상정당 대표
▲金東吉(〃)=유신도건(주)
대표이사
▲朴海春(〃)=광진도재상사
(주) 대표이사
▲徐榮鎮(〃)=대한가죽원대
표
▲李斗浩(〃)=한일파이어트
(주) 대표이사
▲李鍾根(〃)=리키금성(주)
스포츠 전무이사
▲張忠準(〃)=영민당 사무
차장
▲崔允植(〃)=서울종합상사
대표
▲金承萬(62 국문)=영창파이
노 용산대리점 대표
▲趙錫英(〃)=문화방송(주)
부국장대우 전산부장
▲裴鍾大(62 철학)=영우구락
부 대표
▲宋錦球(〃)=교묘 교수
▲金恩興(62법학)=체육부 청
소년국 심의관
▲白永哲(〃)=관동대 총장
▲成鎮慶(〃)=태양기획(주)
감사
▲李麟真(〃)=경남여성 학생
부장
▲鄭振基(〃)=한국토지개발
공사 부산지사장
▲金北皓(62침치)=평화기업
(주) 대표이사
▲金炯國(〃)=태평양화학 뷔
티아카데미원장
▲鄭基用(〃)=前민정당 국책
연구소 상근연구위원
▲趙國衡(〃)=정남산업(주)
관리이사
▲許林(〃)=대한항공 김포
국제여객기지 부장
▲洪正道(〃)=남양은행(주)
이사
▲鄭在皓(〃)=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 지점장
▲李在寧(62 경제)=국민은행
특수영업부장
▲李正路(〃)=동화은행 고객
부점점 점포개설부장
▲李存立(〃)=우주빌딩 대표
▲鄭慶鎮(〃)
▲河在龍(〃)=포항실업 전문
대학교수
▲朴鍾大(62 능학)=고려제이
드 대표
▲岸光春(62 일학)=만중(주)
대표
▲羅洞榮(63불교)=서일 전문
대교수
▲朴賢嬌(〃)=개인사업
▲李水子(〃)=교묘 교수
▲釋誠煥(63영문)=禪茶院원
장
▲李鳳燮(〃)=태평양 패션
(주) 산무이사
▲洪思賢(63사학)=한미 중기
(주) 대표
▲洪致鉉(63불교)=교묘 교수
▲具秀會(63 화학)=동국치과
원장
▲金泰佑(〃)=진흥요업(주)
이사
▲金永昌(63법학)=백조 유아
원원장
▲金正雄(〃)=변호사
▲白文基(〃)=삼봉 터미널

(주) 대표이사
▲白周欽(〃)=대우불제 사장
▲柳汀宇(〃)=무역센터 현대
백화점 부점
▲張泳俊(〃)=대한통운(주)
이사
▲鄭大鎮(〃)=세무사
▲金文植(63 정치)=영진상사
대표
▲金一(〃)=일동제판공업
(주) 대표이사
▲金榮(〃)=천양(주) 대표
이사
▲朴永周(〃)=강원은행
▲金容聖(〃)=한국의환은행
상성동 지점장
▲閻丙璽(〃)=태평양 개발
(주) 프리자호텔 충지배인
▲李喜(〃)=신용보증기금
인사부 연수원 교수
▲陳點德(〃)=김포세관 실리
과
▲千東春(〃)=조양상사 대표
▲金在鎮(63경제)=한국도로
공사 경리부장
▲孫基洛(〃)=금성사(주)
부사장
▲辛敏善(〃)
▲辛承吉(〃)=성하상사(주)
이사
▲李明雄(〃)=현대화재 해상
보험(주) 영업 6부장
▲鄭龍謙(〃)=한국부자신탁
(주) 회계부간
▲陳宗熙(〃)=조흥은행 남
대문 지점장
▲韓有燦(〃)=고려화재해상
보험(주) 대표이사
▲金容均(63경제)=한국·아
람협회 사무국장
▲李昌土(〃)=동관무역(주)
대표이사
▲趙熙榮(〃)=교묘 교수
▲金榮鐘(63상학)
▲朴富鐘(〃)=김-스슈씨룹
대표
▲梁渭鏗(〃)=일화 건설(주)
대표이사
▲尹聖烈(〃)=동화방수 기업
사 대표
▲李大基(〃)
▲張根鎮(〃)=대한교육 보험
(주) 비서실장
▲黃龍浩(〃)=교묘 교수
▲黃種植(〃)=리비트가구 포
함대리점 대표
▲趙炳煥(63농학)=교묘 교수
▲朴大福(63상물)=홍창 대표
▲尹斗玉(〃)=낙원포목 대표
▲崔德鉉(〃)=정원 여자중학
교사
▲高順福(64불교)
▲權奇昂(〃)=교묘 교수
▲李敏壯(〃)=육군 장장
▲柳惠子(64 국문)=MBC 라
디오 제작본부선임대장 부장
▲金興雨(64연영)=교묘 교수
▲偰松雄(64수학)=前신민주 공
화당지구당 위원장
▲閔慶鳳(64법학)=성남회관
대표
▲金孝成(〃)=금강공작소(주)
대표이사
▲朴英길(〃)
▲申相(〃)=서울지방검찰
청 복지부지장
▲李慶純(〃)=한일방직(주)
전무이사
▲車然復(〃)=대한준설공사
인천사무소 소장
▲金萬律(〃)=대한무역진흥
공사 중소기업지원부장
▲張明根(〃)=법제처 차장
▲金文煥(64정치)=세진가구

공예집 대표
▲俞光震(〃)=교묘 교수
▲李明鏞(〃)=한국 자유총연
맹 서울지부 사무국장
▲李鎬萬(〃)=대우유통 대표
이사
▲蔡尚謙(〃)=아남정밀(주)
상무감사
▲金鼎(〃)=64경제)=목현개발
(주) 대표
▲朱龍錫(〃)=조흥은행 영
업부 차장
▲直成(〃)=광우대학교 총
장
▲成增錫(〃)=로보트보일러
(주) 대표
▲許研茂(〃)=해동화재해상
보험(주) 부장
▲白正基(64경영)=삼일설유
대표
▲金松源(64상학)=현우지업
사 대표
▲柳國衡(〃)=한국생명보험
(주) 총무이사
▲金艮煥(64농학)=교묘 교수
▲李重雄(64입학)=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구조개선실장
▲姜惟遠(64경영)=문화교연
(주) 대표이사
▲趙顯秀(〃)=원화상사 대표
▲朴廣度(65불교)=경주 선
원사 주지
▲朴先榮(〃)=교묘 교수
▲趙在浩(〃)=교묘 전산원장
▲洪成淑(〃)=벽산보러쉬
(주) 부사장
▲閻鉉熙(65국문)=신흥제분
(주) 대표이사
▲安重五(65영문)=나라한공
(주) 대표이사
▲權載映(65법학)=치안본부
경정
▲金益相(〃)=변호사
▲閔見植(〃)=영동 빅토리
외국어학원원장
▲朴秉仁(〃)
▲朴熙福(〃)
▲李肖廷(〃)=민자당 국회
의원
▲金鳳春(65정치)=동아일보
서부지부간
▲金在珠(〃)=내무부 인력동
원계장
▲金鍾植(〃)=대명산업 사
장
▲金幸男(〃)=육군 준장
▲李興南(〃)=삼일 코리아
(주) 대표
▲河珍秀(〃)=한국증권 대체
결제(주) 간사실 부장
▲洪鶴橋(〃)=한국네트론 공
원(주) 대표이사
▲金德壽(65 행정)=경주 고
려주경 대표
▲金泰坤(〃)=前민정당 동자
전문위원
▲朴鍾國(〃)=대한교육 보험
(주) 산무이사
▲尹宰暉(〃)=한국 전력공사
진주지점장
▲李元範(〃)=前민주당 지구
당위원장
▲高光德(65 경제)
▲金大元(〃)=삼영화학 그룹
삼영산업(주) 전무이사
▲金三澤(〃)=영진종합 사무
기사장 대표
▲朴勝正(〃)=강서 의료보험
조합 대표이사
▲潘成太(〃)=덕화공업(주)
부사장
▲吳承澤(〃)=월간내외스포
츠 편집위원
▲李禮赫(〃)=선진축산(주)
대표이사

부사장
▲李在喆(〃)=세무사
▲李周炯(〃)=농산유통공
사 유동교육원
▲鄭鎮永(〃)=동명화성(주)
사장
▲趙鍾學(〃)=태양산업 대표
▲金敬根(65경영)=국정교과
서(주) 총장
▲金容均(〃)
▲朴鍾九(〃)=중소기업은행
독립문지점장
▲楊成秀(〃)=동아생명보험
(주) 이사
▲羅慶洙(65상학)=제일은행
성동지점장
▲朴道根(〃)=선경합성(주)
전무이사
▲李春常(〃)=교묘 체육위
워회 위원
▲崔昌淳(〃)=산동회계법인
대표
▲劉邦瑞(〃)=동원상사 대표
▲柳元烈(〃)
▲李秀吉(65입학)=한국판상
수협회 전무
▲唐德(65농경)=교묘 총
동창회 사무국장
▲李在浩(〃)=교묘 전산원장
▲洪成淑(〃)=벽산보러쉬
(주) 대표이사
▲閻鉉熙(65국문)=신흥제분
(주) 대표이사
▲洪起三(〃)=교묘 교수
▲金勇(66상학)=전주문화
방송 아나운서부장
▲金容雲(〃)=보루네오 화
곡대리점 대표
▲尹山鶴(66법학)=한국편집
기자회 사무국장
▲尹貞河(〃)=경안보험 판매
(주) 이사
▲崔成福(〃)=대광기업사장
▲金吉坤(66정치)=평민당 국
회의원
▲趙炳浩(〃)=티파니금은방
대표
▲李相鎮(〃)=서울시청 문화
관광국 문화과장
▲柳英樹(〃)=국세청 수원세
무공무원 연수원
▲金鍾範(66경제)=당진 제일
예식장 대표
▲尹澤(〃)=부국요업(주)
대표이사
▲李承(〃)=오케팅팀(주)
대표이사
▲成百宰(66경영)=대지운수
(주) 저무이사
▲金敏(66상학)
▲閔內哲(〃)=삼일문화사대
표
▲申東珉(〃)=서울신학은행
총무부 2기자점 차장
▲鄭鉉化(〃)=태화기업(주)
대표이사
▲金宇濟(66농학)=정원진흥
(주) 대표이사
▲吳弘明(〃)=농협중앙회 홍
보과장
▲尹天湧(〃)=한국열피가스
공업협회 전무이사
▲權五甲(66농경)=동양프로
파스사 사장
▲李昇宇(〃)=궁전호텔 대표
▲金東埈(67불교)=관음사 주
지
▲李禮赫(〃)=선진축산(주)
대표이사

▲宋永仁(67통제)=국가안전
기획부
▲朴培根(67법학)
▲李敬興(〃)=한국티타늄공
업(주) 산무이사
▲鄭聖采(〃)=동아제약(주)
이사
▲金勝有(67정치)=삼진 토털
페션(주) 대표이사
▲金英煥(〃)=태평양화학 직
판사법 본부이사
▲朴正永(〃)=前민정당 노동
사회국장
▲鄭世綺(67경정)=벽산 금속
(주) 대표이사
▲黃曼煥(〃)=한국감정원 북
부지점장
▲丘在台(67 경정)=치안본부
특수수사 1대
▲李煥雨(〃)=교묘 교수
▲丁炳樂(〃)=금성사무기 대
표
▲金大路(67 경제)=강원산업
(주) 과장
▲池洙熙(〃)=우주빌딩 대표
▲孔在鴻(67 경영)=홍일실업
대표
▲金昌煥(〃)=티워호텔(주)
상무이사 겸 출지배인
▲趙誠冕(〃)=서울부자금융
(주) 상무이사
▲林錦澤(67상학)=신한은행
롯데월드지점 지점장
▲禹昌昱(67농학)=동명인쇄
(주) 대표이사
▲金仁翼(〃)=농협 신림종
합판매 매장 대표
▲具永學(67원원)=동대문상
가주택 사장
▲張韋相(67 대원)=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약자문위원회
▲趙鳳鳳(〃)=제정문제연구
소 회장
▲李載炯(68불교)=정일산업
대표
▲李菊子(68국문)=방송스크
립터
▲鄭在鉉(68통제)=한국산업
은행 청주지점 차장
▲金丙學(68법학)=강원대학
교 교수
▲尹汝達(〃)=변호사
▲朴旺植(68침체)
▲宋寅植(〃)=대구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洪元杓(〃)=미아목장 대표
▲鄭基慶(68정침)=교묘 교수
▲金聖洙(68경정)=효신 공사
대표
▲唐德模(68경제)=롯데 삼사
(주) 이사
▲劉基棟(〃)=월간 의정문화
논설주간
▲李齊煥(〃)=스탠다드(주)
대표이사
▲朴學洙(68경영)=한국 안전
산업공사 대표
▲黃慶鎮(〃)=선진건설(주)
전무이사
▲洪起雲(〃)
▲金勝澤(68상학)=한국 보험
공사 검사 3국장
▲俞炳完(〃)=한양상사 대표
▲李知映(〃)=동림 홍산(주)
부사장
▲車重根(〃)=유한양행(주)
관리부 차장
▲崔仁(〃)=한국 표준기기
(주) 대표
▲孔志浩(68농학)=동서증권
운암지점 지점장
▲姜秉國(68농경)=세교산업
대표
▲宋宋煥(〃)=동진프라스틱

학문과 더불어온 “故鄉중의 고향”

현재 난관, 중흥의 계기로 승화를

<李昌培교수>



48년 영문과에 입학한 후 졸업한 이후, 54년 4월 영문과 교수로 부임하여 35년 10개월이라는 세월을 東岳에 봄들아오면서 교무처장, 사마학장, 대학원장을 최근까지 역임한 李昌培교수가 퇴임을 맞이했다.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으로 활

<金鍾遠교수>



약하며 「T-S 열리엇 연구」 등 20여권의 저서를 저술한 독교문학상, 번역 문학상 등을 수상하기도 한 李교수는 『우수 교수 채용이 대학행정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며 능력과 성실을 갖춘 인간교육을 강조한다.

또한 「현재의 교세가 비록 저하고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 東國이 되는 날 것임을 확신한다』며 나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지난해 충장후보로 출마했고 교수회의선출 충장서리후보

2인중의 1인이기도 한 李교수는 「부정당화 사건후 주위의 권

유와 모교에 대한 마지막 봉

신되는 생각에서 출마했었다』고 당시의 입후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클로즈업

다』라는 金교수는 많은 시간 바쁘게 살아온 자신을 자부하며 외고한 담백한 퇴임소감이다.

퇴임후 저술과 강의에 전념할 생각이라는 金교수는 「정치 경제학」을 내년 출판예정이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화폐금융론」과 「경제학서사」를 강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마쁘게 산

평소의 춤장관에 대해서는 「개혁의지와 민주적 감각을 갖고 종단과 화합하여 학생·교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다.

이후 춤장 재임후보 의사에 있어서는 「별로 뜻이 없고 더 유능한 사람이나 있으면 활용해 아되지 않겠느냐』며 으스물하게 웃는다.

퇴임후 계획에 대해서는 「대학원이나 출강하며 지속활동하고 간접적으로 모교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힌 후 후배들에게 선진적이고 서구적인 지성을 겸비하도록 당부한다.

또 사학 명문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 학교당국은 재정확보 학회지, 문학, 취업내적 마련등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는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는 金교수의 모습에서 평생을 간직해온 東岳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할수 있다.

속에서의 남민의 값어치가 주어진다면 대학생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자산함을 보이기도.

계속된 惡材에 시달린 校內 분위기나 내킬만큼 좋은 것은 아니지만 東國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노력함에 東國의 발전을 원연적으로 보장될것이며 침체된 東國을 도외시하는 개인성향의 일부학생을 불러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부모를 만들수 없듯이 한

東國과 36년, 부총장등 보직 두루거쳐

“한번母校는 영원한母校, 후배에 당부

66년 경상대학장을 시작으로 78년 경영대학원장, 80년 이후 대학장, 83년 교무처장, 85년 부총장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東國과 보낸 36년의 세월을 보내 퇴임을 맞이한 金鍾遠(경제학과) 교수.

『주미들 같은 지난 세월이다. 요즘은 대학사회, 특히 東岳에서 큰 사고없이 정년을 맞이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아 마음 부드러

사람처럼 한시도 낭비하지 않은 꾸준함을 던져준다.

또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며 보낸 비쁜한 속에서 놀기 못 했던 서양학 그리고 이전 퇴임후 외아에 나가 자연에 접하면서 미련껏 그림에 취해 보겠다』는 金교수에게서 또 다른 여유와 美學같은것이 은은히 배여있는 듯 했다.

김교수는 늘 자기직분에 충

번 모교는 미우나 고우나 나의 모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팀이라는 것으로하여 비록 학교는 떠나지만 거의 반평생을 東岳에서 보낸 金교수의 시간들은 긴시간을 무고해 계속 발전한 東國의 밀거름으로 남게 되리라는것을 정년퇴임이란 말조차 어울리지 않을 金교수의 모습속에 기억되어 있었다.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世序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기·폰
- FAX·TELEX, 인터폰, MDF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 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양빌딩 3층 42호

'90 신입생합격선 크게 향상

전후기 분할모집·경쟁률 높아져

90학년도 신입생부터 전후기 분할모집을 실시한 모교는 이번 입시에서 경쟁률은 물론 학생선도 크게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모집에서 언극영화학과가 27.03대 1의 경쟁률을 보인것은 비록 평균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교는 후기모집에서도 총26개학과(경주5개

과 포함)모집인원 6백86명(경주 1백38명)에 총 3천 1백87명이 지원 4.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학생선도 크게 상승했다.

87학년도 입시에서 2년제에 실시된 이번후기입시의 전체 수석은 서울캠퍼스 공과대 전자계산화학과 지원자 6명(경주고교)군이 차지했다.

文化大賞단「韓國佛教全書」

한국 출판문화상 제작상 수상

모교에서 출간한 「한국불교전서」가 한국일보사가 제정한 제30회 한국출판문화상 제작상을 수상했다.

고려속장경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불교문헌을 출수록, 관련학제의 비슷한 관심을 모았던 「한국불교전서」는 기본의 내분별 분류가 아닌 시대별, 저자별, 종파적 대립의 지향과 역사적 특성의 반영이 중으로인정돼 제작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미 同書는 전학이념의 구현과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동국문화상을 지난 60년 연말 동국인의 밤행사에서 수상한바있다.

이번에 수상한 한국출판문화상은 한국일보사가 지난 60년부터 良書의 저술과 출판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 매년 저작상과 출판상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해 오고있다.

학사일정 발표 내달 2일 개강

모교는 90학년도 제 1 학기 학사일정을 발표했다.

개강은 내달 2일로 같은날 90학년도 신입생입학식이 함께 행해지며 수강신청 및 정점은 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각 단과대 교학관에서 실시한다.

경주대학 입원진학정 6대 여학생회도

경주캠퍼스 제 7 대 총학생회(회장=백대진·erkun 3)와 제 6 대 여학생회(회장=한자영·영문 3) 일원진이 확정됐다.

정점된 일원진은 총학생회간 부부총무=박재수(관공경영 3)

▲기획·집행원(부과 3) ▲언어사업=강홍준(국문 3) ▲홍보=김현수(일문 3) 군등 8명이다.

여학생회는 ▲총무=김자춘(가교 3) ▲교육=강현미(국사 2) ▲문화=김경현(고미사 2) ▲사회복지=장선희(철학 2) 양동미이며 기획 및 홍보부는 미정이다.

경주 코끼리상 준공
전 東國人모금 5개월만에

경주 캠퍼스에서도 모교 상징

답인 코끼리상이 지난 26일 학위수여식에 앞서 제작식을 갖고 그 위용을 드러냈다.

캠퍼스의 위상정립과 전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제작, 준공된 코끼리상은 총공사비 9천 만원을 세우는 학교, 재학생의 모금으로 충당했으며 지난 9월 착공이래 5개월여만에 완공된 것이다.

청동제로 모교 李點元(미술학) 교수가 제작한 코끼리상은 높이 3m × 깊이 5m, 뒷면은 학교간으로 높이 5m × 가로 2m × 세로 5m의 사다리꼴에 연꽃무늬를 주변에 새겨놓았다.

랑탕리봉에 등정

산악부 세계 4번째 개방

해발7,239m의 히말라야고봉 랑탕리봉정에 나선 모교산악부가 세계 최초 등정등정의 기록을 세우며 등정에 성공했다.

박석열(원정대장·체교 4)·윤태영(산공)·김형우(무역)·김동우(체교 4) 등 4명이 12월 9일 해발 6천 6백50m의 제 3 베이스캠프를 출발, 알파인스타일로 6시간의 최단시간 등정등정기록을 세우며 일본에 이어 두번째, 팀별로는 4번째 등정에 성공했다.

아름다움을 위한

목화화원

꽃에 관한 모든것

·화환·신부화

·각종 화분

전화 267-2871

272-8200

359-7004 (0)

대표 김명숙 (74 杜社)

시내 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양빌딩 3층 95호

실력과 인연 갖춘 東國人 될것을

졸업은 끝이 아닌 절대始作...吳鎮模동문

부단한 자기혁신이 "東國中興"

大地에 薫氣가 돌고 萬物이 소생하는 초봄에 雪의 功을 닦아 이제 青雲의 높은 理想과 뜻을 품고 社會에 첫발을 내디딘 후에 同門들의卒業을 진심으로 祝賀하며 앞날에 무궁한 榮光이 있기를 비는 바이다.

흔히卒業을 工夫와 探究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이제부터人生的始作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Commencement는卒業 또는始作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이제 사同門이 된 것을 환영하면서 社會의 先驅로서 참고가 될만한 조언 몇가지를 하자 한다.

첫째, 學窓時節의 원대한 理想과 抱負를 살리기 위하여 百折不屈하는 努력을 다하라. 學窓時節에는 理想과 浪漫만을 추구하며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學生이라는 身分문에 이해와 용서가 되었지만 社會는 이같은 실수를 용납치 않는다는 것을 각별히留意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傷엄한 현실에 부

딪힐 때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용기와 끈기를 갖고 정진하기 바란다. 자칫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사회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를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습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중 현대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을 들라면 운전과 컴퓨터, 외국어 구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실한 人間이 되라.

惡과 거짓이 판을 치는 오늘 현실에서는 機謀術數와 모략과 아침이 人間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으나 이는 일시적 눈가림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성실한 사람의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기 바란다.

세째, 끊임없는自我革新으로 東國人的傳統과 名譽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周知하는데 바와 같이 84년의 歷史와 傳統을 갖고 있는母校가 그大學에 비해 발전은 커녕 점차 퇴보되고 있는 것 같다.

차제에 불교학 전신을 계승하고 誓願東國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국인의 비상한 결의로서 일대改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재학생, 교직원, 동문, 재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완수를 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새기품을 확립. 이를 통한 대학의 中興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東國人 모두에게 부과된 책임인 것이다.

끝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職場을 차지 자신의 職場으로만 여기지 말고 民族과 國家, 人類를 위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연미하는 道場으로 생각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長篇小說「黃海」

李元揆 著

최근 분단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설가 李元揆(76·국문)

新刊안내

동문이 장편소설 「黃海」를 내놓았다.

지난 84년 현대문화 창간3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베트남전 참전경험을 내용으로 한 「훈장과 굴레」가 당선되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한 李元揆의 「黃海」는 한국근대사의 근원을 탐구하려는 애심에 찬 작품으로 해방전후의 인천과 그 인근 도시지방을 주제로 그곳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고뇌를 좌·우익의 춤돌을 중심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인간존재의 근원을 해부하는 소설창작에서 분단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로 전환한 뒤 88년에는 장작집 「침묵의 심」으로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재 인천 인학교고등학교에서 교련을 꾸고 있다.

교차로

늘 自利와 利他의 가드침을 편 柳頓문의 나리사람이 이번에도 한몫을 담당한듯 한데 늘 부처님의 가호 함께 하길 빙니다.

▲申法陀(74印哲·美羅스 엔젤스·修道寺주지) 동문이자 난8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복한을 맡았을, 남북불교교류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

申동문의 이번 밝복은 오는 4월 법주사·통일암원 청동미륵대불·준공법회에 참석할 북한포의 초청과 상호교류를 위한 것으로 '낮선길, 놓았자'며 난 어려운길에 대파없는 무사한 귀향을 삼가기원.

광고
점수 733-3993 代

회비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회비
▲남우중(중앙일보 대만 지
국장)=10만원
△단체회비
▲내민유학생 일동=7만원
◇90년 회비

▲정상봉=1만원 ▲김철제=
"▲한용희=" ▲최규환=" ▲
박성희=" ▲윤규하=" ▲박귀
복=" ▲정호기=" ▲황한순=
"▲윤석순=" ▲이상평=" ▲
조재문=" ▲임동래="

會費納付를 당부합니다

회보제작·기금마련등에 긴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문여러분의 협조로 本會는 사무전산화, 동문조직 강화, 모교지원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문여러분의 계속적인 회비 협찬을 바랍니다.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東國文學이 곧 한국문학" 재확인

붓글터 활약에 어깨으쓱

○...신년 東國의 새아침은 신춘문예를 석권한 5명의 동문들로 하여 誉호하기만 한 출발로 기여될듯.

동국문학이 곧 韓國文學임은 바로 붓글(筆洞) 더라는 명칭에서부터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어 뒤를 잇는 후배들로 하여 가슴 든든하기만. 「침체」나 「부진」이니 하는 달갑잖은 얘기는 이제『속』들어가고 본 동동등子 내외에 고하노니 文學을 하려거든 東大로!』

不遠千里 회비납부감사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요, 교문을 떠나면 모두 애교자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대만동우회 얘기 한 토막 소개.

10여명의 동문이 모여 「동



東同大同동창회活動 움직임

국사당을 기워나가는 대만동우회는 바쁜 유학일정 속에서도 틈을내어 박영원(87동문) 등 문인 본회를 찾아 근

"부끄러움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활을 전하고 단체회비까지 납부.

아무리 바빠도 모교를 찾는다면 힘을 낸다는 柳頓문의 정성과 애교심, 모두가 본받을 수 있길.

본회 자립운영에 성원있길

○...반갑고 훈훈한 여러 소식끌에 本동동동등子 동문여러분께 김히 「갈증」을 호소합니다.

자립운영체제로 흑보선 本會의 기초는 동문여러분의 각별한 사랑임은 두말할 나위 조차 없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마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회비」라고 이르노니 동문여러분 本동동동등子의 「갈증」을 풀어주세요.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대우자동차(株)

89년신형 정통고급승용차 탄생

임피리얼 (3,000cc) 계약개시
로얄시리즈 (로얄프리스·듀크)
월드카르방 (GSE·옵티마·GTE·레이서)
TEL 553-4712
487-7539 (야간) 판매과장: 崔鉉石 (74경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3 영신빌딩 1층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당 및 안내

公認仲介士 정종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喆 (86 경원)
• 全國不動產仲介業協會理事
• 東城區 公認仲介上會會長
전화: (사) 234-4777, 238-9321~2 (Fax)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 (극동아파트 정문앞)

■西強 보쉬 純正品
연료 절감
엔진 출력증가/수명연장
■ 적용차량
현대·대우·기아·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 평 우 (70 경영)

信一金属센터(株)

활동판·동판·활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 (84 경원)
본사: 서울 동대문구 응우동 255-58
924-6662, 924-6363

世進家具有工芸店
TEL: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경외)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